

2020년 5월 1일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해 지사로부터 현민 여러분께 요청

《골든위크 기간 중의 요청》

- 연휴 기간 중 현 외로의 교통기관 예약 상황은 작년에 비해 많이 감소되었지만,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.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. 연휴 중 이동하는 사람에 의해서 현 내 감염이 확대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.
- “아웃도어라면 괜찮겠지”, “자가용을 이용하면 괜찮겠지”라고 많은 현민 분들이 생각하고 있어서인지 미치노에키(국도 휴게소)와 로컬푸드 직매장이 사람들로 혼잡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.
- “나는 괜찮겠지”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, 당신이 무증상으로 감염된 결과, 당신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전파할지도 모릅니다. 고령자와 기저질환의 사람뿐만이 아니라, 중증화될 수 있는 위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.
- “자신의 목숨보다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의 목숨보다 외출이 중요한 것인가”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어, 주간, 야간을 포함해 “불요불급의 외출”은 자제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.
- 3월 하순부터 4월 중순에 걸쳐서 감염자의 증가는 지금까지 현민 여러분의 협력에 의해 간신히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,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현 내에서 없어졌다는 근거는 없습니다. 앞으로의 연휴 중 현민 여러분이 사람과의 접촉을 가능한 피해주신다면, 앞으로의 현 내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.
- 자택에서 편히 쉬는 것만으로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에히메를 지킬 수 있습니다. 그동안 “자숙으로 인한 피로감”을 해소하기 위해 외출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, 지금이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.